

호스피스간호 방법

● 호스피스란?

- 호스피스란 임종을 앞 둔 사람과 그의 가족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돌보는 과정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임종을 앞둔 수급자(어르신)이 죽기 전에 머물면서 쉬고, 생을 정리하고 완성하여 조화를 이루는 작업을 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 죽음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생의 한 과정이다. 따라서 임종을 앞둔 수급자(어르신)에게 오는 심한 비탄과 공포, 외로움, 고통을 제거시킬 수는 없다. 다만 임종을 앞둔 수급자(어르신)와 가족의 비탄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임종 간호(호스피스)는 최후의 순간까지 수급자(어르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수급자(어르신) 스스로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호스피스의 목적

- 호스피스는 가족관리, 증상조절, 통증관리, 영적지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 호스피스의 원칙

- 증상조절 : 완치를 하는 치료가 아니라 증상조절에 역점을 둔다. 진통제의 사용에 있어서도 규칙적으로 투여하고 넉넉히 투여한다.
- 체계적, 연속적인 간호 : 센터에서, 병원 진료과정에서, 집에서도 전달 가능해야 한다.
- 수급자(어르신)와 그의 가족을 간호의 단위로 한다. : 수급자(어르신) 뿐만 아니라 가족도 호스피스 돌봄의 대상이 된다.
- 팀 접근 : 의사(촉탁의 등),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목사(외부 목사), 영양보호사, 조리원, 자원봉사자 등 다방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임종을 앞둔 수급자(어르신)의 케어

- 임종을 앞둔 수급자(어르신)은 1인실(특별침실)을 드려 개인성을 유지하되,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
- 시력이 약해지므로 방을 밝게 해드린다.
- 청각은 늦게까지 남아있으므로 조용히 하고, 모든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정상 음성으로 명확하게 말한다.
- ※ 죽음의 다가옴에 따라 시력이 흐려져서 어두운 방보다 밝은 방을 선호하고, 임종을 앞 둔 수급자(어르신)가 볼 수 없고, 반응을 할 수 없게 된 뒤에도 말하는 것은 들을 수 있다.
- 실내온도는 21도에서 23도 정도로 유지시킨다.
- 욕창의 예방을 위해 체위를 변경시키고, 머리를 약간 높여준다.
- 영양보호사는 수급자(어르신)의 말에 관심을 보이고 잘 경청한다.

● 임종 시 신체적 징후

- 확대되고 고정된 동공
- 동작 불능
- 반사소실
- 빠르고 약한 맥박
- 체인 스톱 호흡
- 혈압 하강
- 인두의 점액 축적으로 호흡 시 소리 발생

● 사후처리의 목적

- 돌아가신 수급자(어르신)의 외모를 가능한 단정하게 하여 정상적인 모습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후처리의 목적이다.

● 사후처리 절차

- 유족에게 수급자(어르신)의 죽음을 알린다.
- 필요한 물품을 편리한 곳에 갖다놓고 방문을 닫는다. 불가피한 경우는 스크린을 친다.
- 사용했던 의료기구 등을 모두 제거하고, 분비물 등을 닦아준다. 필요시 간단한 dressing을 해준다.
- 사체를 반듯하게 누인다. 사후강직(사체 경직)이 오기 때문이다.
 - ※ 사후처리로 가장 먼저 수급자(어르신)를 반듯이 눕히고 베개를 베게한 후 사지를 똑바로 한다.
- 제거했던 의치를 끼우고 입을 다물게 하고 눈을 감긴다. 필요시 반지 등을 끼워주되 이때는 빠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고정한다.
- 필요시 침상목욕과 몸단장을 해준다.
- 수의를 갈아입힌다.
- 항문, 질, 상처 등을 솜으로 막는다. 괄약근이 이완되어 체액이 흘러나온다.
- 위 흡이불은 사체 어깨까지 말끔하게 맞추어 덮어준다.
- 사망증명서 한 장은 시체에 붙이고, 다른 한 장은 흡이불 위에 안전핀으로 고정한다.
- 가족에게 의류와 귀중품 등을 내주고 서명을 받도록 한다.
- 가족에게 퇴소 절차를 밟도록 한다.
- 시체를 지정된 영안실로 보낸다.
- 생활실을 정리하고 환기시킨다. 감염병 수급자는 생활실과 물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 사망 전 수급자(어르신) 상태, 사망시간, 담당의사, 사망 시 있었던 사람, 처치해준 내용, 시체 운반시간 등을 기록한다.